한국 영화에 나타난 조선족 재현 양상 연구*

김 종 수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조선족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시선을 분석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을 여성인물과 남성인물로 나눠 고찰하였다. 조선족 여성 인물들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난을 겪으며 관객의 연민과 동정을 유발한다. 인물의 이주 서사를 통해 한국 대중은 국외자로서의 조선족 여성이 연변을 떠나 한국에 이주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목도하며 조선족의 이주를 용인한다. 한편 조선족 남성 인물들은 범죄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야성과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한국 대중은 조선족 남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주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여긴다. 한국 대중에게 조선족 여성과 조선족 남성은 각각 순수한 존재와 불결한 존재, 연약한 존재와 강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한국인과의 경제-문화적 위계 속에서 타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무>는 한국의 노동자와 이주민 조선족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임을 암시하며 조선족을 대하는 한국인의 윤리적 갈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21세기 이주민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한국 영화, 조선족, 이주 서사, 범죄 영화, 경제-문화적 위계, <해무>

* 이 논문은 2015년 경희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www.kci.go.kr

Ⅰ. 서론

21세기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부터 세계화의 물결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쳐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1]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전개되는 문화적 충돌과 집단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의 효과적인 사회통합정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이주민을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 대중이 지닌 이주민에 대한 정서적, 문화적 편견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백인이 지닌 우월적인 인식을 수용하여 그들에게는 우호적이면서 동남아시아 계통 유색인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국 대중의 상반된 반응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독특한 편견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반영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대중들이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에 내재된 인식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 대중의 시선 속에 담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분석은 21세기 다문화 사회인 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본고는 우선 한국 사회에서 국외 이주민으로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주해 왔으며 현재 이주민의 구성 비율로 가장 많은 수[2]를 차지하는 조선족[3]을 바

1) 최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한국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한다.-「국내 외국인 200만 명 돌파」, 『조선일보』, 2016년 7월 28일자.

2)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2015년 12월 18일 현재 국내 체류 조선족은 65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재외동포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한 이들까지를 합치면 2015년 12월 현재 국내 거주 조선족은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다. 「국내 조선족 80만명, 이방인 아닌 이방인」, 『한국일보』 2015년 12월 19일자.

3) 중국의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19세기이후 동북아시아 삼국의 정치적이고

www.kci.go.kr

라보는 한국 대중의 시선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족은 1990년대 한국이 후기 자본주의 산업 구조로 재편되고 생산직 노동인력의 부족과 서비스 산업 부문의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주해온 대표적인 국외 이주민이다.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 투입될 외국인 이주 노동 인력 중에서도 조선족은 한국문화에 친숙하고 한국어에 능숙한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노동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내국인으로부터 소외되고 다문화 지원으로부터도 배제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로 대우받고 있는 "탈영토화된 코리안"[4]이다.

지난 20여 년간 조선족의 이주과정은 글로벌한 경제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벌어진 이주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체제가 양산해내는 노동력 이주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조선족 유입과 그들의 정착을 필연적으로 이끌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족 이주의 전개과정에 내재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조선족을 바라보는 한국 대중의 시선은 매체들에 노출되는 조선족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선족에 대한 법적인 대우가 부족했던 이주 초기에 한국 사회에 불법적으로 이주해왔던 불법 체류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대로 고착되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에는 온갖 부정적 기호, 가치, 상징이 부여되고 있다. 입에 담기 곤란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조선족은 가난하고, 시끄럽고 지저

역사적 갈등 관계 속에 형성된 집단이다. 현재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한국에서도 쓰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재중동포, 중국동포, 재한조선족, 귀한조선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조선족이 한국인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에 많은 부정적 기호와 가치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함축하고 있는 부정적 기호와 가치의 근거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조선족의 명칭에 대한 기원과 다른 호칭에 대한 소개는 신현준, 「동포와 이주자 사이의 공간, 혹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상이한 성원권」, 『귀환 혹은 순환』, 그린비, 2013, 57-62면 참조. 또한 조선족이라는 호칭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연구는 주영하, 「소수자로서의 재중 조선족」,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237-260면 참조.

4) 신현준, 앞의 글, 13면.

www.kci.go.kr

분하고, 무질서하고, 몰염치하고, 촌스럽고, 미개한 존재로 간주된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적, 공식적 담론들은 조선족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점을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것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5]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조선족을 가장 위험한 국외이주민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2000년대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국외 이주민 가운데 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이 가장 높다[6]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중 젊은 세대가 조선족을 혐오하는 수준이 더 높게 나온 점[7]을 보더라도 같은 민족인 조선족을 대하는 한국인의 감정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여기에는 대중매체가 구축해 놓은 조선족의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만들고 지위를 부여해주는 영향력 있는 담론 생산 기구는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 혐오하는 외국 이주민으로 조선족을 손꼽게 된 데에도 언론과 영화, 소설과 같은 허구적 세계를 다루는 대중매체에서 그려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끼쳤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족은 한국에서 TV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조롱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2001년에 연변개그[8]의 과장된 말투와 내용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4년에도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재로 어리숙하고 아둔한 조선족의 모습을 재현하여 웃음코드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매체를 통해 한국사람들에게 각인된 조선족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조선족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가로막으

5) 신현준, 앞의 글, 61면.
6) 가상준 외,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12권 1호, 2014, 84면.
7) 가상준 외, 같은 글, 80면.
8) 조선족 총각으로 나와서 연변 사투리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강성범은 최근에도 북한 말투를 흉내내는 "모란봉홈쇼핑"이라는 코너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민족의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지역 말투가 유도하는 웃음코드에는 같은 민족이면서 위계화된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 계층적 위계를 강화하면서 조선족과 탈북자, 북한 사람을 현대 한국인보다 저열하다는 인식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www.kci.go.kr

며 한국 사회 내에서 조선족을 저열한 사람들로 각인시키고 한국 사회의 계층적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세이며 임금체불이나 폭력 등 여러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집단으로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로 이미지화되어 한국인들의 삶의 위협자로 묘사됨으로써 조선족을 우리가 도와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갖도록 만들며 조선족에 대한 정서적 · 문화적 거리두기와 타자화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족이 등장하는 한국 대중영화를 대상으로 조선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조선족을 바라보는 한국 대중의 시선을 살펴보고 그 시선에 담겨진 대중의 심리를 탐색해 보도록 한다. 본고가 연구 대상을 영화로 선정한 이유는 영화가 대중들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주요한 매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미학적 경험으로 지각되는 매체로서 대중들에게 이미지나 상상력의 확장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여 대중들에게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체로서 영화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한국 영화에 나타난 조선족을 다룬 연구는 주로 조선족 영화 감독 장률의 영화를 분석한 연구들과 '로컬리티로서의 연변/조선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률 감독의 영화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그의 영화에 나타난 조선족의 상황을 조명하고 현대 조선족이 처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9] 이러한 연구들은 조선족 감독 장률을 통해 이산(離散) 과정에서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조선족 내부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조선족을 바라보는 한국 대중의 시선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외국인으로서의 조선족을 조명한 <황해>(2010)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10]와 범죄영화에 집중하여 조선족과 연변이라는 지역의 로컬리티에 초점

9) 육상효, 「침묵과 부재: 장률 영화 속의 디아스포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9권 11호, 2009.; 박노종·고현철, 「영화 속 조선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2012.

10) 김남석, 「<황해>에 반영된 연변 조선족의 이미지 왜곡 현상과 사회상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7권 2호, 2014.

www.kci.go.kr

을 맞춰 진행한 연구들[11]은 전지구적 이주의 시대에 국가적 경계를 넘나들면서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의 삶과 그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범죄영화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한국 대중의 시선에 관한 심리 분석과 한국 대중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21세기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 대중들이 조선족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한국인과 조선족의 문화적 위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조선족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 내재된 모순적이면서도 양가적인 심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영화에 나타난 조선족을 여성인물과 남성인물로 나누어 고찰한다. 영화 속에서 재현된 조선족이라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에게 투사되고 있는 대중의 심리가 달라 성별에 따른 인물의 묘사와 서사적 전개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Ⅱ. 조선족 여성의 이주 서사와 동정의 심리

한국 영화를 보는 대중 관객들은 영화에 등장한 인물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카메라에 비춰진 인물의 외양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족은 한국 사회에서 마주치게 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옷차림으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처럼 한국인과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영화에서 재현되는 조선족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옷차림으로 묘사된다.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 여성들의 외양은 1970년대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시골 처녀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댄서의 순정>(2005)에서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주인공 장채린은 조선족 여성의 전형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스커트와 발목까지 덮히는 흰 양말을

11) 이명자, 「동시대 한국 범죄영화에 재현된 연변/조선족의 로컬리티」, 『영상예술연구』 24, 2014; 문재원, 「고착되는 경계, 트랜스로컬리티의 불가능성」, 『한일민족문제연구』, 2015.

www.kci.go.kr

신고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여행 가방을 두 손에 들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장채린은 한국영화에서 등장하는 조선족 여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재현된다. 조선족 여성의 전형적인 외양은 그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다. <황해>(2010)에 등장하는 구남의 처도 한국으로 가기 위해 연길을 떠나는 기차에 오를 때 장채린과 흡사한 스커트와 양말, 구두를 신고 두꺼운 머플러를 목에 감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차이나블루>(2012)의 여주인공 칭칭도, <해무>(2014)의 여주인공 홍매 역시 예의 조선족 여성들의 옷차림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등장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모두 겨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외투와 목도리, 모직 치마와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 양말 등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신체에 대해 보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조선족 여성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조선족 여성의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옷차림은 이주한 한국에서의 정착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영화에서 조선족 여성들은 그들의 몸을 탐하는 한국의 남성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 댄서였던 언니를 대신에 한국에 위장결혼하여 입국한 장채린은 자신의 존재가 탄로나자 접대부로 일해야하는 유흥주점에 고용된다.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칭칭은 연예기획사 사장의 강압으로 한국의 재력가의 성욕 대상이 된다. 조선족 여성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한국 남성들은 조선족 여성을 쉽고 약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남의 처는 한국인 유부남과 동거를 하다가 무참히 살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밀항 과정에서 한국 어선에 옮겨탄 <해무>의 홍매는 전진호 선원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다 자신들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욕망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소외되고 왜소해진 한국 남성들이 욕망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면서 비정한 사회 속의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로 그려진다. <댄서의 순정>의 영세는 다리를 다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폐인처럼 살던 댄서였고 구남의 처를 처참히 살해한 수산물 유통업자는 이혼한 채 근근히 생활하는 도시 하층민이며, 전진호 선원 동욱은 다방 아가씨의

www.kci.go.kr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왜소한 인물이었다. 소외된 한국 남성들이 욕망하는 조선족 여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무한경쟁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비정함과 대비되는 순수한 존재로 재현되는 것이다.

쉽고 연약한 조선족 여성 인물들의 유일한 바람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다. <댄서의 순정> 여주인공 장채린은 언니를 대신해서 한국에 정착하여 돈을 벌고 언니를 초청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언니를 초청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감행하는 장채린과 달리 <차이나블루>의 칭칭은 가수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한다. 장채린이 한국에 정착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댄서로 위장하는 것과 달리 칭칭은 댄스가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황해>의 주인공인 구남의 처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다. 남편이 마련해준 이주비용 6만 위안으로 한국에 온 구남의 처는 불법 입국자로서의 불안한 일상을 보내며 한국에 정착하기를 꿈꾸었다. <해무>의 홍매 역시 오빠가 있다는 “구로 3동 247-6번지”로 가서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다. 이들에게 한국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며 이들은 코리언드림을 이루려는 인물로 제시되는 것이다.

조선족 여성 인물들이 보여주는 밀항과정의 고통, 정착을 위한 동거와 위장결혼, 이 과정에서 조력자로 등장하는 실패하고 왜소한 남자와의 관계 등은 조선족 여성 인물의 이주의 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이다. 한국 사회의 남성에게 욕망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조선족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남성,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남성성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재현된다. 특히 이때 조선족 여성의 상대 남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낙오된 인물이거나 하층 노동자, 도시의 건달 등이다. 힘의 세계에서 밀려나 건달 세계에서도 별볼일 없거나 댄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퇴락한 남성이 조선족 여성을 만나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차이나블루>의 남자주인공 건달 은혁은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온 조선족 칭칭을 곤경에서 구해주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 은혁은 칭칭과 사랑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되어 갖고 있던 조선족에 대한 혐오의

www.kci.go.kr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되고 남자로서의 삶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한다. <댄서의 순정>에서 영세도 조선족 아가씨 장채린을 통해 생의 의욕을 회복하게 되는 병약한 댄서였다. <해무>의 동식은 밀항하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홍매를 구해주고 첫눈에 반해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다. 홍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전진호 선원들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동 속에서도 살아남아 삶에 대한 윤리의식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족 여성인물들은 불법이주민으로서 추방의 위협 때문에 불안해 한다. 추방의 위협 때문에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지만 거기에 반항하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을 감내해야하는 여성인물들에게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증폭되게 된다.

사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조선족 중에서도 여성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한다. 조선족 여성들은 언어가 통하고 중국에서와 같은 노동을 해도 환율차로 인해 임금을 10-20배 이상 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문은 불완전 취업과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식당 및 여관, 유흥업소의 서비스 및 가사 노동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하고 저임금을 받는 부문의 노동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서비스 노동시장은 점점 더 여성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혼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동 상품성이 저하되고,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퇴출되기 시작했고 조선족 이주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12] 한국 사회에서 식당, 여관, 다방, 가정부, 파출부 등을 대부분 조선족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 속에서 쉽게 마주치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선족 여성에게 대해 동정적인 심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2000년대 한국영화에서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의 욕망이 대상이거나 폭력의 희생자이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남성들과 연루되어 그들의 남성성을 회복하거나 생의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존재로 미화된다. 조선족 여성

12) 김은실ㆍ민가영, 「조선족 사회의 위기 담론과 여성의 이주 경험 간의 성별 정치학」, 『여성학논집』 23권 1호, 2006, 123-125면 참조.

www.kci.go.kr

은 이주 과정에서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재현됨으로써 조선족 여성은 한국인보다는 불쌍한 존재, 동정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쉽고도 약한 존재라는 특별한 대상으로 조선족 여성들을 이미지화하여 한국 사회 속에서 하층에 위치시키는 경제-문화적 위계 하에서 그들의 이주를 용인하는 것이다.

Ⅲ. 조선족 남성의 범죄 서사와 공포의 심리

2000년대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 여성이 쉽고 약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면 조선족 남성은 그와 상반되게 강하면서 거북한 존재로 묘사된다. 조선족 여인들이 과거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하던 시골 처녀의 외양을 환기시키면서 연약함과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로 이미지화되고 있는데 반해 조선족 남자들은 불결하면서 촌스러운, 도심의 노숙자와도 같은 이미지로 재현된다. 조선족 남성인물들은 한국의 세련된 도시공간과 대비되며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황해>에서 밝고 깔끔한 인천공항에 두꺼운 털옷과 허름한 옷을 입고 입국한 면정학 일행을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눈초리로 대면한다. 인천항으로 입국한 <신세계>의 연변거지들은 주변사람들과 눈에 띄게 다른 옷차림뿐만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도착한 순진한 아이처럼 과도하게 호기심을 나타내는 눈짓과 표정으로 한국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기괴한 색과 무늬의 셔츠, 검게 그을린 얼굴과 아무렇게나 기른 머리 등 가난에 찌들고 “어떠한 근대적 규율도 접해보지 못한 패거리로 의미화”[13]되는 조선족 남성들은 음식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도 타자화된다.

<황해>의 구남은 밀항 후 울주에 도착하여 잠에서 깨어난 후 허기진 배를 달랠 때나 살인용의자로 추격을 받으며 쫓기다 예의 울주 횟집에서 냉장고를 뒤져 게걸스럽게 먹는 장면은 명료하게 들려오는 효과음과 어울려 동물적인 모습으로 재현된다. 또한 면정학 패거리가 서울의 철거 가옥 거실에 모여 큰 솥에 뼈째로 삶아 고기를 뜯어 먹는 장면 역시 서울의 한국인들과는 다른 조

13) 이명자, 앞의 글, 27면.

www.kci.go.kr

선족의 원시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같은 한국인의 집단적 상상으로 타자화된 조선족의 이미지는 가난한 조선족 대 잘 사는 한국인, 더러운 조선족 대 깨끗한 한국인, 거친 조선족 대 세련된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황해>에서 구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설정되는데 거기에는 그가 살아온 야생적 환경 탓으로 이해된다. 평범한 인물이지만 여러 위험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조선족 사회의 야생성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구남의 놀라운 자생력은 그가 후진적이고 미개한 연변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서사적 논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반하여 "연변/한국, 조선족/한국인, 후진성/선진성, 충동/질서, 야만/문명이라는 이항대립"[14]이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한국인은 조선족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식을 지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황해>에서 살해당하는 김승현이 구남을 보자 반말을 하며 조선족에게 시혜를 베푸는 자로서의 한국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음식점 사장이 구남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대뜸 반말을 하고 울주의 여인숙 사장도 조선족에게 하대하는 것을 당연한 듯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인의 조선족 하대와 우월의식 때문에 한국인은 조선족을 함부로 다루어도 괜찮다거나 무조건적인 동정의 상대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황해를 건너온 조선족은 한국 대중에게 외국인과 동포 사이에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황해>의 구남이 자신이 살인해야할 김승현을 처음 만났을 때 김승현이 구남에게 "조선족이야?"라고 대뜸 말하며 2만원을 건네주는 장면이 말해주듯 조선족은 무시와 동정의 대상으로 재현된다. 한국으로 오기 전 구남은 노름판에서 같이 노름을 하던 중국 한족이 "조선족 새끼"라고 멸시하는 말에 화를 내어 다투기도 하였다. 구남은 중국에서 멸시당하고 한국에서 무시받는 대상으로 재현되면서 중국과 한국 어디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로 재현된다. 그리하여 구남은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서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구남의 특수한 처지는 한국에서는 조선족 남성 대부분이 그러한 상황에 놓인 듯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황해>에서 김승현 교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조선족"이라고 발표되는

14) 김남석, 앞의 글, 119면.

www.kci.go.kr

뉴스에서 김구남이라는 개인보다는 조선족 전체가 용의선상에 올라 조선족 밀집지역이 요주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 조선족 개인이 벌인 사건은 항상 조선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다. 한국 대중이 조선족에 대한 심정적 거리감을 넓히고 그들의 삶을 대상화하며 경계하게 되는 이유이다.

불결하고 기괴하며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되는 조선족은 동일한 민족적 호명 내에서 경계에 위치한다. 조선족은 민족적 호명보다는 차별적 호명으로 열등한 이미지를 내포한 것으로 유포된다. 그리하여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한 민족의 표상이 아닌 그들을 타자로서의 집단적 호칭으로 묶어 차별적인 위치를 생산한다.[15] 한국 사람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미발달한 사회로 폄하되는 조선족 사회여서 그러한 사회를 근간으로 살아온 조선족의 성향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원시성을 환기시킨다. <황해>의 면정학과 같은 인물을 통해 조선족의 원시성은 강한 폭력성으로 쉽게 환치된다. 면정학은 사회 체제가 정비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력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영화 내에서 한국의 조직폭력배는 연변 조선족 폭력배를 상대하지 못할 만큼 더욱 폭력적인 인물로 재현되는 것이 면정학이다.

<황해>와 같은 범죄 서사에서 이주민으로서 조선족은 우리와 닮았지만 더럽고 원초적이며 미처 발전하지 못한 전근대적 집단으로 한정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위계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민족내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선족은 순수 한국인보다 문화적으로 수준이 낮은 중국 사람으로 영역화된다. 이러한 영역화는 지배집단이 바람직하지 않은 특질을 다른 집단의 특성으로 돌리면서 이들에 대해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타자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내부인들은 세련되고 근대적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한편, 조선족은 그것이 본래 내부인의 속성을 갖고 있더라도 위계가 낮은 집단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최근 “범죄 영화가 표상하고 있는 사실은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 국가의 경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고 민족 내부에서도 위계를 만들어 조선족을 배제”[16]하

15) 문재원, 앞의 글, 144면.

www.kci.go.kr

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족을 범죄 집단화하는 한국 사회의 심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조선족의 범죄는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17] 조선족을 불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국민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난 미등록 노동자를 불법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범죄 집단과 연결시키는 인식적 편견에 기인한다. 조선족 남성들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며 언제든지 발각되어 강제 출국될 수 있는 떠돌이들,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잡힐 염려가 없는 사람들"[18]로 생각된다. 후기산업 자본주의의 경제적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적 필요 때문에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사회는 조선족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외자인 조선족을 국민국가의 일원으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가 조선족을, 조선족 남성들을 지저분하고 교양없는 사람, 또는 범죄자 집단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영화의 범죄 서사에서 등장하는 조선족 남성들은 한국인들이 그동안 기피해온 노동에서 일을 하여 왔던 이주노동자이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한국 영화에서는 조선족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이들의 이주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조선족 남성들이 불러 일으키는 혐오와 공포의 정서는 여타 외국인 혐오증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 조선족은 동포로서 한국의 내부인이지만 중국 공민으로서 외부인이고 이방인이라는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다른 외국인과 달리 한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외모 탓에 타자이지만 식별하기 어려운 타자라는 점에서 한국 대중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킨다. "조선족은 내부와 외부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쉽게 뛰어넘어 외부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

16) 이명자, 앞의 글, 31면.

17) 한 보고에 따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의 범죄율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높은 것도 아니다. 2011년 기준 한국계중국인(조선족) 포함한 중국인의 범죄율은 2.92%로 미국, 캐나다인들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신 · 강석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참고.

18) 양은경,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2010, 226면.

www.kci.go.kr

는 사실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친숙하지만 낯선 존재"[19]인 것이다.

Ⅳ. 하층노동자-조선족의 대립과 광기에 내재한 윤리적 갈등

영화 속에서 재현된 것처럼 조선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적 시선은 조선족을 한국인보다 저열한 집단으로 폄하하고 경제-문화적 위계의 하층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들을 타자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은 한국인의 생존을 위해 도구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암묵적인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2014년 개봉된 <해무>에서는 조선족과 하층 노동자의 대립 관계를 바탕으로 조선족을 대하는 한국인의 윤리적 성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해무>의 서사적 전개는 사양길이 된 안강망 어선인 전진호가 어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조선족 밀항을 돕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영화의 시간적 배경인 1998년은 한국에 불어닥친 전국가적 불황의 시기였다. 한국의 경제적인 구조 조정이 한층인 이때에 지방의 하층노동자인 어부들이 경제적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조선족을 돈벌이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조선족 밀항 일을 하던 전진호의 어창에 숨어있던 조선족이 모두 프레온 가스에 누출되어 사망하게 되고 그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전진호 선원들은 이들을 모두 바다에 수장한다. 이 영화에는 경제적 불황의 상황에서 생존에 대한 광기어린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누출사고로 죽은 30명의 조선족의 시신을 토막으로 잘라 바다에 내버리는 것이다. 사건을 은폐하고 생존을 도모하려는 전진호 선원들 중 한국 사회에서 도망을 다니느라 배를 떠나지 못하는 기관장이 돌연 미쳐버린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기관장의 실성에 전진호 선장은 자신들의 반인간적인 행태를 은폐하고자 기관장을 살해하고 전진호의 다른 선원들도 서로간의 알력으로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해무 때문에 공해상을 지나던 거대한 화물선에 충돌하여 전진호는 침

19) 이명자, 앞의 글, 27면.

www.kci.go.kr

몰하고 만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한국에 거세게 불어오던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경제적 불황과 위기를 조선족의 삶으로 타개하겠다는 영화 속 설정은 현실 속 하층노동자와 조선족의 운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밀항해 온 조선족이나 그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한국의 하층민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다. 또한 <해무>에서 죽은 시신을 도끼와 칼로 절단하여 바다에 버리는 잔혹한 도륙질은 <황해>에서 면정학 일당이 벌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족이나 경제적 하층민인 어부들이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약자의 유사한 처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해무>는 국내로 들어온 조선족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려던 한국의 하층민이 자신들의 반인류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소외 계층인 지방 어민들과 이방인인 조선족의 대립으로도 보일 수 있는 서사적 파국이지만 사실은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희생된 한국의 경제적 약자들의 비극적 결말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조선족을 타자화하면서도 그렇게 타자화하여 생존을 모색하려한 한국 사회의 노동계급 역시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몰락할 존재임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조선족에 대한 배타적 시선의 성찰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약자가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 생존하려는 몸부림이 근본적으로는 모두를 파국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윤리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선족을 우리와는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여 쉽고 약한 존재로 동정하려고만 하는 것이라거나 범죄자 집단으로 싸잡아 이해하려 하고 지저분하고 교양없는 열등한 집단으로 치부하려하는 한국 대중에게 그같은 인식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각인시켜준다.

<해무>는 조선족을 타자화하여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려했던 한국의 하층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행적에 대한 인간적 양심을 보여준다. 조선족을 이용하여 활로를 모색하려던 자신들의 반도덕적이며 반인륜적 행적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몰고 온 경제적 약자

www.kci.go.kr

들의 비극적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족을 대하며 갖게 되는 이같은 윤리적 갈등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전개해온 신자유주의의 횡포에 대한 반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조선족의 삶과 한국인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같은 구성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 6월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구비율은 5년 내에 3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법무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전지구적인 이주의 시대에 단일민족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한국도 외국에서 들어온 다수의 이주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며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다문화사회에서 집단 간의 문화적 갈등을 무마하고 각 집단의 요구를 균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외국 이주민의 법적, 제도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 이주민들을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한 관점으로만 바라보며 그들을 타자화하는 문화적 위계를 고착시키는 한국 대중들의 이해 또한 교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족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외국 이주민이었으나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동포이다. 한국은 민족에 대한 상상된 동일화를 바탕으로 조선족을 여타 외국인 이주자에 비해 바람직한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족은 동포이기 때문에 “탈민족화된 다문화 시민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또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민족화된 재외국민의 권리를 강하게 행사할 수 없”[20]었다. 이같은 법적이고 정책적인 소외에 덧붙여 한국 대중들의 경제-문

20) 신현준, 앞의 책, 287면.

www.kci.go.kr

화적 위계 속에 타자화되며 한국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로 형성되는 조선족에 대한 상상적 관념은 한국인과 조선족 간의 문화적 위계를 공고하게 하면서 조선족을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해무>의 예에서 보듯 조선족에 대한 배타적 시선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쉽고 약하다거나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이해했던 조선족을 자기 생존을 위해 도구화하려는 행위가 모두를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족에 대한 왜곡과 폄하의 시선을 반성한다. 조선족을 대하며 갖게 되는 이같은 윤리적 갈등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전개해온 신자유주의의 횡포에 대한 반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조선족의 삶과 한국인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가상준 외,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12권 1호, 2014.

김남석, 「<황해>에 반영된 연변 조선족의 이미지 왜곡 현상과 사회상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7권 2호, 2014.

김은실 · 민가영, 「조선족 사회의 위기 담론과 여성의 이주 경험 간의 성별 정치학」, 『여성학논집』 23권 1호, 2006.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문재원, 「고착되는 경계, 트랜스로컬리티의 불가능성」, 『한일민족문제연구』 2015.

박경화·박금해, 「민족과 국민 사이 :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정체성의 갈등」, 『한국학연구』 39, 2015.

박노종·고현철, 「영화 속 조선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2012.

www.kci.go.kr

서정경,「중국동포의 귀환과 한국사회의 과제: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의 중국동포’를 넘어」,『디아스포라연구』8권1호, 2014.
스티븐 카슬 · 마크 J. 밀러,『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2013.
신현준,「동포와 이주자 사이의 공간, 혹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상이한 성원권」,『귀환 혹은 순환』, 그린비, 2013.
양은경,「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한국방송학보』24권5호, 2010.
육상효,「침묵과 부재: 장률 영화속의 디아스포라」,『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9권 11호, 2009.
이명자,「동시대 한국 범죄영화에 재현된 연변/조선족의 로컬리티」,『영상예술연구』24, 2014.
이수자「이주여성 디아스포라」,『한국사회학』38권 2호, 2004.
주영하,「소수자로서의 재중 조선족」,『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최영신 · 강석진,「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www.kci.go.kr

❖ ABSTRACT

A Study on Korean-Chinese Characters Represented in Korean Films

Kim, Jong-Soo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to understand the mentality of South Korean people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exploring Korean films in which Korean-Chinese characters have been represented since 2000. For this purpose, Korean-Chinese characters represented in Korean Films are divided into male and female.

It could be said that South Koreans are biased against Korean-Chinese, who are considered 'others' under the economic and cultural hierarchy. Female characters are presented as 'pure' and 'frail' in the migration narrative while male characters are 'indecent' and 'brutal' individuals in crime narrative films.

Meanwhile, *Haemoo* [Sea fog] is a story about economically weak Koreans and Korean-Chinese who were in economical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were victims of the economical restructuring systems under neo-liberalism.

Key Words

Korean film, Korean-Chinese, migration narrative, crime narrative films, economic and cultural hierarchy, *Haemoo*[Sea fog]

논문접수일: 2016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9월 05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06일

www.kci.go.kr